

##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결과

기획조사팀

**본** 회(회장 김남문)와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ICAP: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 2010년 11월 15일 리츠칼튼 서울호텔 금강룸에서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알코올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한 주류업계의 노력을 강화하고 국회, 정부, 보건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류제조업계, 주류유통업계, 주류수입업계 등 주

류업계 관계자 외 국세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부처와 대한보건협회, 음주운전예방재단,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각계에서 140여명이 참가하여 알코올 문제예방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본회 회원사인 16개 주류제조업체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나친 광고로 인한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류광고 자율규제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류업계의 자발적인 광고자율규제는 미국맥주업계, 일본맥주업계 등 일부 선진국에서 특정 주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글로벌 주류제조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조치인데 반해, 국내 주류업계에서는 전 주종에 대해 광고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전 주종이 광고자율규제를 체결한 것은 아시아는 물론 EU 등 선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서 향후 타국에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한라산 현재웅 전무, 보배 김홍곤 상무, 페르노리카코리아 프랭크 라베르 대표, 진로 임재범 상무, 한국주류산업협회 김남문 회장, 하이트맥주 이인우 상무, 디자이오코리아 김종우 대표, 오비맥주 최수만 전무, 롯데주류 김중규 상무, 국세청 황대철 사무관

이번 협약에는 진로, 롯데주류, 금북주, 보배, 무학, 대선주조, 보배, 선양, 충북소주, 한라산 10개 소주제

조사와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2개 맥주제조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디자이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3개 위스키제조사 등 국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16개사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약주 등 전통주와 막걸리 제조업체 그리고 와인 등 수입주류판매업체도 향후 광고자율규제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체결된 협약에는 ① 청소년, 임산부 등 음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행위금지, ② 대학교 캠퍼스 및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광고금지, ③ 모든 주류광고에서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금지 ④ 미성년



자 모델의 광고등장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⑤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등 알코올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회와 그 회원사인 국내 주요 주류제조업체는 향후 주류광고를 심의 및 모니터링하고 지나친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가하는 등 금번 체결된 광고자율규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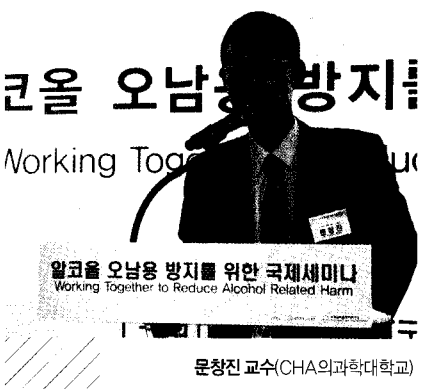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주류광고 자율규제 협약체결, 사례발표, 패넬토의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문〉에서는 'WHO글로벌 알코올전략과 향후전망'을 주제로 하여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보건계의 동향 및 이에 따른 주류업계의 역할 발표가 진행되었다.

WHO는 2010년 5월 정기총회에서 '글로벌 알코올 전략'을 채택하여 각회원국에 알코올 관련 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권고하였으며, 10가지 알코올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알코올 관련 폐해 실정을 모니터링하여 WHO에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문창진 CHA의과학대학교 교수(前식약청장 및 前보건복지부 차관)는 보건복지부 차관 및 주제네바한국대표부 WHO담당 참사관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WHO가 추진중인 글로벌 알코올 전략결과와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 교수는 음주문제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의 지지 없이는 해결이 곤란하므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는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보강하고 음주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은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원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 금융, 환경, 교통, 교육, 고용,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문 교수에 이어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 이사회의 Rick Connor이 사회장의 'WHO알코올 전략에 따른 주류업계의 역할'이라는 주제



문창진 교수(CHA의과학대학교)



Rick Connor(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 이사회장)

발표가 이어졌다. Rick Connor이사회장은 WHO의 글로벌 알코올 전략을 보면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알코올 오남용 방지와 문제해결을 위해 주류업계가 다양한 역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고, 한국도 한국실정에 맞는 주류업계의 역할을 선정하여 정부 및 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이행해 나갈 것을 권장하였다.

〈제2부분〉에서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국내 주류제조업체 16개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광고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을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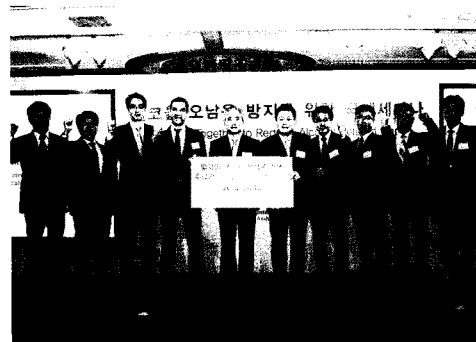
Franck LAPEYRE 대표(페르노리카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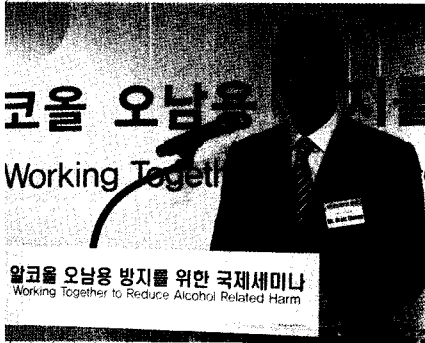


김종우 대표(디지털오코리아)



김남문 회장(한국주류산업협회)





Brett Bivans(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



조성기 본부장(한국주류연구원)

〈제3부문〉에서는 주류광고 자율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및 국내 주류업계의 향후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의 Brett Bivans 부회장은 광고자율규제의 해외사례를 통해 광고자율규제의 효과성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한국주류연구원의 조성기 연구본부장은 광고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국내 주류업계가 광고자율규제협약 체결 이후 추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 본부장은 광고자율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가 광고자율규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자율규제의 공정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문단 운영, 업체광고 담당직원의 교육과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자율규제협약의 개선활동을 지속할 것을 추천하였다.

〈제4부문〉에서는 페르노리카, 디아지오, 오비맥주 및 한국음주문화연구소 등 국내의 주류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알코올 폐해 감소 사례가 발표 되었다.

페르노리카아시아본부의 Adam Gagen과 디아지오아시아태평양 본부의 Lin Menuhin은 양사가 아시아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코올 폐해 감소활동 사례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들은 해외사례를 비추어 볼 때 성공적으로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비맥주의 최수만 전무는 오비맥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임있는 음주문화 장려를 위한 'Responsibly Cool캠페인',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Show ID캠페인', 건전음주문화봉사단 등 음주 문제 예방을 위한 오비맥주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한국음주문화연구소의 김동화 본부장은 한국음주문화연구소에서 실시중인 알코올 문제 예방·연구·홍보사업 및 알코올의 존자 치료·재활 사업을 소개하였다. 한국음주문화연구소는 국내 주요 주류제조업체(소주, 맥주, 위스키 제조사) 및 주정업체들이 2000년에 설립하여 10여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로 주류업계에서는 매



Adam Gagen(페르노리카 아시아본부)



Lin Menuhin(디자인오 아시아태평양본부)



최수만 전무(오비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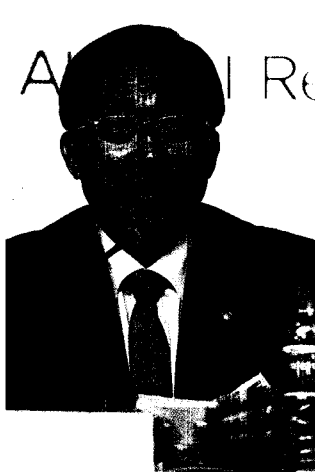


김동학 본부장(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년 50억원 가량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제5부문>에서는 김춘진 국회의원, 맹호영 보건복지부 과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용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성기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 및 본회 이종진 상무(패널 진행) 등 국회, 정부, 학계, 사회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향후 예견될 수 있는 알코올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호공동노력 방안을 토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토의에 참여한 모든 패널들은 주류업계의 광고자율규제협약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으며,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



김춘진(국회의원)



맹호영 과장(보건복지부)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주정책이 아닌 '해로운 음주'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또한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하며 알코올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제1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 TO Reduce Drinking To:



김용석 교수(가톨릭대학교)



조성기 본부장(한국주류연구원)



이종진 상무(한국주류산업협회)

여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한 주류업계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류업계 스스로 '주류광고 자율규제협약'을 체결하여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 준 세미나였다.

그동안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은 알코올 폐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왔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내 주요 주류제조업체(소주, 맥주, 위스키 제조사) 및 주정업체들은 매년 50억원 이상을 10년 넘게 출연하여 알코올 의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사별로 미성년자음주 행위 방지 및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들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